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林永彦* · 李錫寅**

(e-mail: *yimye@hanmail.net · **silee@mokpo.ac.kr)

目次

I. 서론	IV.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과 경영성과 분석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도출	1. 표본의 특징
1.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구축과정	2. 민단계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특성 분석
2. 네트워크 특성과 경영성과	2.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 분석
III.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재일코리안의 이주가 191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10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본에는 약 58만 명의 재일코리안이 거주하고 있다¹⁾. 재일코리안의 이주 시기는 초기 가난과 생활고에 의한 이주, 일제강점기 강제이주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목포대학교 경영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1)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는 재일조선인, 재일교포, 재일한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한국인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남한 지지자를 민단계, 북한 지지자를 총련계로 불려왔다. 또한 이주시기에 따라 1945년 전후 도일한 경우 올드커머, 1980년 전후 도일한 경우 뉴커머로 지칭하고 있다. 글로벌시대 그들의 법적지위에 따라 한국계일본인, 혹은 재일코리안으로 부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총련계와 민단계, 그리고 이들을 총칭할 경우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음.

와 피압박에 의한 징용, 해방 전후 정세불안과 혼란 등 여러 단계의 정착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일코리안들은 거주국 일본에서 파칭코산업이나 야끼니쿠산업, 토목·건축업 등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공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화상들의 단체인 혈연, 지연, 업연 중심의 화교네트워크, 즉 강한연대인 인간관계(판시)를 활용하여 개혁개방 이후 중국 근대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바 있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 귀교 권익보호법을 제정하여 화교정책을 화교자본 유치와 기술과 인재흡수, 화교네트워크 활용 중국 상품수출, 화교투자자의 정보교환 및 관계증진, 화교기부를 통한 교육사업 장려, 화교 우대조치 및 유인정책을 펼쳐 중국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²⁾.

이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교기업과 같이 우리기업의 글로벌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계한상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코리안과 모국과의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가운데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김태영·박재수(2006)³⁾, 임영언(2007)⁴⁾ 등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민기업이 강한연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재일코리안 기업은 민족차별이나 동화정책으로 인하여 일본시장이나 글로벌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약한연대의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한바 있다. 이들 연구는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네트워크에 관한 유일한 연구이지만 민단계와 총련계로 구분되는 재일코리안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일코리안 기업을 민단계와 총련계로 구분하여 네트워크의 특징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국에서 사회문화적, 혹은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정체성을 소유한 민족집단의 경우, 민족네트워크에 의한 응집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재일코리안은 그동안 민단계와 총련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재일코리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네트워크 형성과정과 각 네트워크의 특성 차이를 비교함과 동시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

2) 임채완·장선미외(2007) 『재미한인의 기업의 네트워크』 북코리아, p.53.

3) 김태영·박재수(2006)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상황구조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제30집)』, p.362.

4) 임영언(2007)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제34집)』 p.647.

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명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구축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경영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한 후 재일코리안 기업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도출

1.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구축과정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 3세~4세들은 일본의 민족차별과 동화정책, 재일코리안 사회의 내부분제(민족교육 부재, 정체성 부족 등), 그리고 한국정부의 관심부족 등으로 매년 1만 명 정도가 일본사회에 점차 동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재일코리안 1세~2세들은 1960~70년대 강한연대를 구축하여 모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당히 기여하였지만 재일코리안 3세~4세의 경우 정체성이 모호하고 모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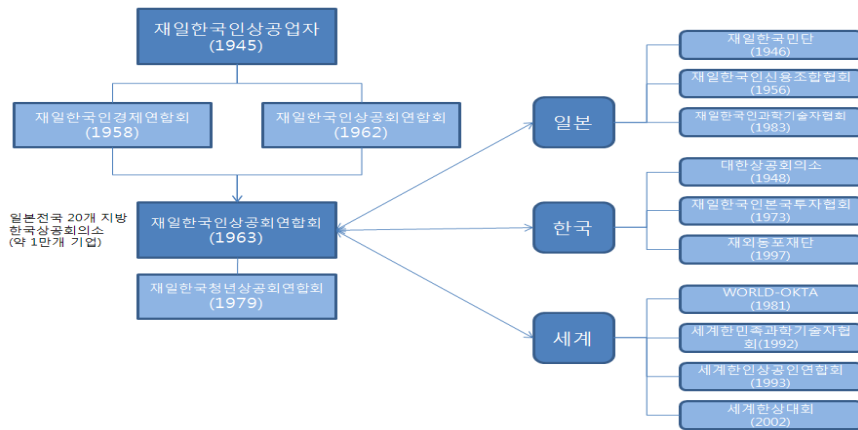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재일코리안 기업가 1세~2세들은 모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재일코리안 기업간의 민족네트워크 특성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태영·박재수, 2006).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글로벌시대 재일코리안 기업가 3세~4세는 그들의 기업이 일반적인 합리성을 보이기 때문에 재일코리안 1~2세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다른 약한연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특성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임영언, 2007).

재일코리안 기업의 특성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단계 재일동경청년상공회의소(1989)와 총련계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2001)는 자체 연구조사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일본 내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를 조사한 적이 있다. 또한, 오규상(1996), 박삼석(2002)의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일코리안 기업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재일코리안 기업의 업종별 분포와 특징, 민족문화발전과 민족교육의 공헌, 해외코리안 네트워크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형성과정이나 모국과의 투자나 재산반입 실태 등에 대한 연구로는 해외교포문제연구소(1966), 하명생(2003), 재외동포재단(2008)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들 기존연구들이 발견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

우, 초기 기업형성과정에서 민족 내 강한연대의 네트워크 형성기반, 거주국 일본기업과의 구조화된 네트워크구축, 모국 또는 글로벌 코리아기업과의 네트워크 지향 등을 시대적 추세로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에 의거하여 주로 재일코리아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특성,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민단계 재일코리아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구축과정5)



<그림 1>은 민단계 재일코리아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구축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최초 재일코리아 기업은 동질민족집단의 강한연대를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재일한국인상공업자는 ‘재일한국인상공회연합회’와 ‘재일한국인경제연합회’라는 두 조직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두 조직의 합병문제가 대두되면서 1963년 ‘재일한국인상공회연합회’로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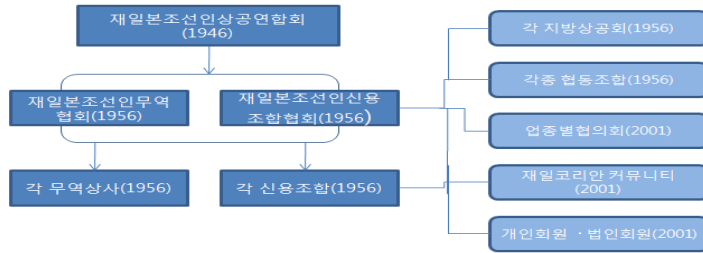
1970년대 말에는 재일코리아 기업의 세대교체론의 등장으로 차세대 기업가양성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재일코리아는 60~70년대에는 민족집단 내 강한연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민기업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70~80년대 이후 모국투자의 활성화, 본격적인 글로벌화가 시작된 90년대 이후 글로벌코리아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단계를 거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재일코리아 기업은 자의든 타의든 모국과의 경제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모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그들 기업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글로벌시대 재일코리아 기업들이 민족내부의 제한된 강한연대의 네트워크

5) 在日韓國商工會議所(2002) 『韓商連四十年史』 在日韓國商工會議所, pp.26-27을 참고로 작성.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글로벌화의 길은 요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일코리안 기업들은 모국투자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세계 한인기업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급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구축과정⁶⁾



<그림 2>는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구축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재일조선상공인(기업가)들은 1945년 9월 도쿄에서 ‘재일조선공업회’의 결성을 계기로 1946년 2월 26일 ‘재일본조선인상공회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재일본조선인상공회연합본부’를 설립하게 된다.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는 1955년 5월 총련결성 이후 총련 산하단체에 가입하여 상공련을 조직하고 1961년에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1962년 4월에 ‘조선상공회관’을 설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상공인들은 1984년 북한이 ‘합변법’⁷⁾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으로의 진출과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⁸⁾. 북한의 ‘합변법’의 취지는 북한과 세계 각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합변법의 공포에 따라 북한의 기업이나 회사와 합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는 1986년 합변사업 추진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합변사업연구회’를 발족하였으며 1987년에는 모스크바에서 합변총회사 주최 북한 경공업제품전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재일조선상공인들은 1987년 9월에는 총련합변경제대표단과 조선상공인들의 북한방문, 1989년에는 ‘조선합변은행 설립’ 등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전반까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투자나 기술개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재일본조선인상공회는 북한과 총련계 재일코리안을 중심으로 일본 내에서 강한연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활동이

6) 吳圭祥 (1992) 『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 雄山閣出版, p.46을 참고로 작성.

7) 1984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변법(합변법)’을 채택하여 실시하게 되었음.

8) 위의 책, pp.88-89 참조.

나 네트워크 범위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일본사회에서 민단계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들은 독자적인 경제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민단계 재일코리안 기업들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들보다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경제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들은 민단계 재일코리안 기업들보다 더 폐쇄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정 경제단체하고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험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1: 민단계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네트워크 특성과 경영성과

일반적으로 네트워크(Network)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연결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버트(Burt, 1992)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상호접촉에 의해 보유되는 자원 및 접촉에 의한 사회적 구조를 동시에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집단(특정 민족집단, 가족, 공동체, 조직과 단체 등)의 경계를 횡단하는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특정 민족집단의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예를 들면, 우리들 주위의 사회적 관계인 네트워크는 우리가 속해있는 복수의 집단(가족, 친족, 학교, 지역공동체, 회사 등)의 경계를 초월하여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이민집단과 같은 소수민족집단의 경우, 조직이나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강화시키며, 같은 민족집단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Campbell, Marsden, & Hurlbert, 1986; Lin, 2001). 또한, 이민자들의 경제행위는 사회적 관계인 네트워크에 의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민기업들의 관계를 기술하고 수량화하여 행위자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다.

그동안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약한연대(Weak ties)’와 ‘강한연대(Strong ties)’의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자리해 왔다. 그라노베퍼(Granovetter, 1998)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남성 화이트칼라 노동자에 관한 조사에서 “구직자가 직업을 구할 때 강한 연대(항상 만나는 사람)를 가진 사람보다는 약한연대(거의 잘 만나지 않는 사람)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구직과정상 더 유용한 정보가 입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한연대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Granovetter, 1973 & 1982). 이것은 약한연대가 강한연대 보다 행위자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구직과정에서 정보수집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강한연대로 연결된 사람들은 동일한 민족집단과 같은 동질적인 사회권에 속하고, 이미 알려진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약한연대로 연결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단체나 조직에 속해있어 새로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약한연대는 강한연대로서 연결된(집단 성원간에 모두 알고 지내는 것과 같은) 밀도가 높은 집단간의 다리 역할을 한다.

<표 1>은 약한연대와 강한연대의 가설을 근거로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틀(Framework)이다⁹⁾. 이 분석 틀에 의하면 약한연대와 강한연대는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강한연대의 특성을 보면, 상호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밀도가 높으며, 신뢰관계도 높다. 하지만 네트워크 넓이는 좁기 때문에 조직간의 연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조직내부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정보가 공유된다. 반대로 약한연대의 경우 상호관계가 약하고, 밀도와 유사성이 낮으며, 신뢰관계도 약하나, 네트워크 범위가 넓어 조직간 상호 연결기능과 외부 네트워크나 집단과의 정보전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표 1> 네트워크 특성 분석의 틀(Framework)

네트워크 특성 지표	약한연대(Weak ties)	강한연대(Strong ties)
상호관계	지인 또는 평범한 관계 (거의 만나지 못하는 사람)	가족, 친척, 친한 친구나 동료 (평상시 자주 만나는 사람)
관계성의 밀도	낮다	높다
상호유사성	낮다	높다
연대의 넓이 (네트워크 크기)	넓다	좁다
상호연결기능	조직간 연결기능 역할	조직간 연결기능 못함
구성원 간의 신뢰도	신뢰관계 약함	신뢰관계 강함
네트워크 역할	개방적 (네트워크 간 정보전파)	폐쇄적 (네트워크 내부의 정보공유)

주) 그라노베타(Granovetter, 1982)와 모리(守政毅, 2004)의 논문참고 작성

9) 임영언(2007)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34집, p.639.

네트워크 구조의 약한연대와 강한연대의 가설은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Granovetter, 1995, 1998; 渡辺, 1999; 安田, 2001). 글로벌시대 상이한 이민집단이나 단체, 혹은 국가 간의 가교역할이라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틀(Framework)을 응용하여 제일코리안 기업 내에 존재하는 경제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고, 그러한 특성이 경영성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김태영·박재수, 2006).

연구문제2: 민단계와 총련계 제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제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이 경영성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연구문제1(민단계와 총련계 제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을 해결하기 위해 1) 민단 소속(민단계) 제일코리안 기업과 총련 소속(총련계) 제일코리안 기업 추출, 2) 민단계와 총련계의 제일세대별 분석, 3) 민단계와 총련계의 언어(일본어, 한국어) 구사능력 분석, 4) 민단계와 총련계의 경제네트워크 참가여부 분석 등과 같은 접근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2(민단계와 총련계 제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노베터(1982)와 모리(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경제네트워크 특성 분석 틀(Framework)을 고안하였다. 경제네트워크 특성지표로는 참가빈도, 네트워크 크기, 경쟁도, 거래빈도, 거래연수로 선정하였다.

<표 2> 제일코리안 경제네트워크 특성 분석 틀(Framework)

네트워크 특성 지표	약한연대(Weak ties)	강한연대(Strong ties)
참가빈도	적다	많다
네트워크 크기	넓다	좁다
경쟁도	높다	낮다
거래빈도	적다	많다
거래연수	작다	크다

연구문제3(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이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참가빈도는 네트워크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네트워크 크기는 네트워크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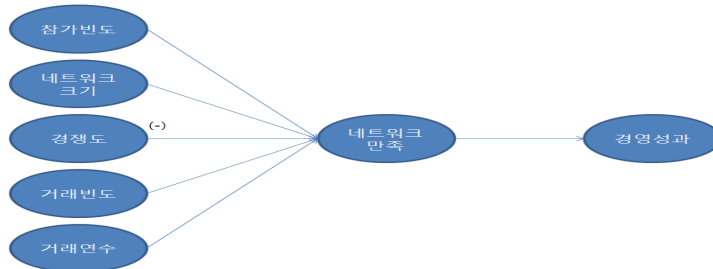
가설3: 경쟁도는 네트워크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거래빈도는 네트워크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거래연수는 네트워크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네트워크만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4>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인과모형



또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그라노베티(Granovetter, 1982)와 버트(Burt, 1984)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3> 인과모형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측정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방법	
네트워크 특성	참가빈도	재일코리안 기업가가 최근 6개월 동안 민단이나 총련 등 각종 단체나 조직에 참가하는 정도	거의 참가하지 않음=1, 가끔 참가함=2, 자주 참가함=3
	네트워크 크기	재일코리안 기업과 참여 단체나 조직과의 거리	가까운 지역=1, 같은 도내=2, 일본 전역=3, 해외=4
	경쟁도	재일코리안 기업이 속해있는 업종의 경쟁기업 수	매우 많음=1, 약간 많음=2, 보통=3, 약간 적음=4, 매우 적음=5
	거래빈도	재일코리안 기업가간 상품이나 자본 거래빈도	매우 자주=1, 자주=2, 보통=3, 드물게=4, 매우 드물게=5
	거래연수	재일코리안 기업이 거래 기업과 거래한 연수	거래연수를 숫자로 직접 기입
네트워크 만족	재일코리안 기업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경제네트워크에 만족하는 정도	매우 불만족=1, 조금 불만족=2, 보통=3, 조금 만족=4, 매우 만족=5	
경영성과	재일코리안 기업이 경제네트워크에 참가한 이후 경영성과의 변화정도	매우 좋아짐=1, 좋아짐=2, 변화 없음=3, 나빠짐=4, 매우 나빠짐=5	

위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일코리안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도 현재 재일한국인회사명감¹⁰⁾에 따르면, 총 3,053개(도쿄 1,266개, 오사카 1,365개, 후쿠오카 422개)의 재일코리안 기업이 있다¹¹⁾. 이들 기업의 대표(CEO)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총 154부의 설문조사지가 최종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및 회귀분석 등을 통해 집단계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현황 및 특성분석, 그리고 경제네트워크 특성이 네트워크 만족과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IV.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과 경영성과 분석

1. 표본의 특징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재일코리안 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도쿄에 68.2%가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오사카에 19.5%, 후쿠오카에 12.3%가 위치해있다.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세대별 분류에 의한 빈도분석을 살펴보면, 재일코리안 2세(51.9%), 재일코리안 1세(37.7%), 재일코리안 3세(10.4%) 순으로 나타났다.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세에서 60세 사이가 68.8%를 차지하였으며, 40세 미만도 20.1%를 차지하였다.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76.6%, 여성이 23.4%를 차지하였다. 한편, 재일코리안 기업의 창업연도를 살펴본 결과 1990년부터 2000년 사이가 38.3%, 1980년부터 1990년 사이가 20.8%, 2000년 이후가 14.3%,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가 12.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코리안 2세와 3세의 비중이 높고, 1970~80년대 이후 도일한 미들뉴커머¹²⁾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 在日韓國商工會議所 (1997) 『在日韓國人會社名鑑』

11) 임채완·임영연외(2007) 『재일코리안기업의 네트워크』 북코리아, pp.188-192.

12) 미들뉴커머란 재일코리안들이 1945년 이전에 도일한 올드커머와 1980년대 이후 도일한 뉴커머들의 중간기간인 1945년부터 1980년 사이에 도일한 자들을 지칭함.

<표 4> 응답기업의 특징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지역별 분포	도쿄 68.2% 오사카 19.5% 후쿠오카 12.3	세대별	재일 1세 37.7% 재일 2세 51.9% 재일 3세 10.4%
연령별	40세 미만 20.1% 40~50세 35.7% 50~60세 33.1% 60~70세 7.8% 70세 이상 3.2%	성별	남성 76.6% 여성 23.4%
창업연도	1960년 이전 6.5% 1960~1970년 7.8% 1970~1980년 12.3% 1980~1990년 20.8% 1990~2000년 38.3% 2000년 이후 14.3%	네트워크 참가 유무	참가 95.5% 비참가 4.5%
업종별	서비스업 50.0% 도·소매업 35.1% 제조업 14.9%	참가 조직 및 단체	민단 44.2% 총련 20.1% 기업가협회 12.3% 재일한국상공회의소 29.9%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 26.0% KOTRA 4.5% OKTA 12.3% 재일한국청년상공회의소 3.9% 재일한국인연합회(한인회) 15.6% 동창회 6.5% 향우회 5.8% 종친회 2.6% 교회 16.2% 절 1.3% NPO·NGO 1.9%
주력업종	야끼니쿠산업 16.9% 판매영업 16.2% 음식·숙박업 11.0% 무역업 9.1% 토목·건설업 5.8% IT관련산업 5.8% 부동산·금융 4.5% 기타 23.3%		

재일코리안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업’이 50%, ‘도매·소매업’이 35.1%, ‘제조업’이 14.9%를 차지하였다. 주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법’에 의거해 재분류해보면, ‘야끼니쿠산업’이 16.9%, ‘판매영업’이 16.2%, ‘음식 및 숙박업’이 11%, ‘무역’이 9%, ‘파칭코산업’이 7.1% 순이었다. 재일코리안 기업이 야끼니쿠산업이나 음식업, 파칭코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당시 소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자본의 회전율이 높아서 단기간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의 95.5%가 각종 단체나 조직에 가입하여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코리안 기업가가 참가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을 순위별로 정리하면, ‘민단’이 44.2%, ‘재일한국상공회의소’가 29.9%, ‘재일조선상공연합회’가 26%, ‘총련’이 20%, ‘교회’가 16.2%, ‘재일한국인연합회(한인회)’가

15.6%, 'OKTA'가 12.3%, '기업가협회'가 12.3% 순이었다. 이 중 중요한(가입률 10% 이상) 경제네트워크는 제일한국상공회의소, 제일조선상공연합회, 제일한국인연합회(한인회), OKTA, 기업가협회로 확인되었다¹³⁾.

2. 민단계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특성 분석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의 민단과 총련 참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민단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총 68개사(44.2%)이고, 총련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총 31개사(20.1%)이다. 민단에는 참가하고 있으나 총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61개사(39.6%)인 반면, 총련에는 참가하고 있으나 민단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24개사(15.6%)이다. 한편, 민단과 총련에 동시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7개사(4.5%)이다.

<표 5> 재일코리안 기업의 민단과 총련 참가 현황

구분		총련		
		비참가	참가	전체
민단	비참가	62(40.3)	24(15.6)	86(55.9)
	참가	61(39.6)	7(4.5)	68(44.1)
	전체	123(79.9)	31(20.1)	154(100)
카이제곱 검정		$\chi^2=7.327, df=1, \text{유의 확률}=0.007$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세대별 민단과 총련조직의 참가 현황은 <표 6>과 같다. 민단에 참가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기업가는 제일 2세가 22.1%, 제일 1세가 18.2%, 제일 3세가 3.8% 순이었다. 총련에 참가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기업가는 제일 2세가 16.2%, 제일 1세와 3세가 모두 2.0%를 차지하였다.

13) 교회의 가입율도 16.2%를 차지하였으나 경제네트워크에서는 제외하였음.

<표 6> 재일코리안 세대별 민단과 총련 참가여부 비교

세대구분	민단			총련		
	비참가	참가	전체	비참가	참가	전체
재일코리안 1세대	30(19.5)	28(18.2)	58(37.7)	55(35.7)	3(2.0)	58(37.7)
재일코리안 2세대	46(29.9)	34(22.1)	80(51.9)	55(35.7)	25(16.2)	80(51.9)
재일코리안 3세대	10(6.5)	6(3.8)	16(10.4)	13(8.5)	3(2.0)	16(10.4)
전체	86(55.9)	68(44.1)	154(100)	123(79.9)	31(20.1)	154(100)
카이제곱 검정	$\chi^2=0.776$, $df=2$, 유의확률=0.679			$\chi^2=14.243$, $df=2$, 유의확률=0.001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의 일본어 구사능력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의 일본어 구사능력은 보통(34.5%), 뛰어남(29.2%), 매우 뛰어남(36.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모두 보통 이상의 일본어 구사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단계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일본어 구사능력 수준을 비교해보면, 민단계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이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가들 보다 일본어 구사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민단계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의 일본어 구사능력 비교

단체구분	단체 참가여부	일본어 구사능력			전체
		보통	뛰어남	매우 뛰어남	
민단	비참가	34(22.1)	21(13.6)	31(20.1)	86(55.8)
	참가	19(12.4)	24(15.6)	25(16.2)	68(44.2)
	전체	53(34.5)	45(29.2)	56(36.3)	154(100)
카이제곱 검정		$\chi^2=3.026$, $df=2$, 유의확률=0.220			
총련	비참가	38(24.7)	34(22.1)	51(33.1)	123(79.9)
	참가	15(9.8)	11(7.1)	5(3.2)	31(20.1)
	전체	53(34.5)	45(29.2)	56(36.3)	154(100)
카이제곱 검정		$\chi^2=7.093$, $df=2$, 유의확률=0.029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매우 서투름(10.4%), 서투름(14.3%), 보통(26.6%), 뛰어남(26.0%), 매우 뛰어남(22.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75.3%가 보통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단계와 총련계 재

일코리아 기업가의 한국어 구사능력 수준을 비교해보면, 민단체 제일코리아 기업가들이 총련계 제일코리아 기업가들 보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민단체와 총련계 제일코리아 기업의 한국어 구사능력 비교

단체 구분	단체 참가여부	한국어 구사능력					전체
		매우 서투름	서투름	보통	뛰어남	매우 뛰어남	
민단	비참가	9(5.8)	7(4.6)	27(17.5)	22(14.3)	21(13.6)	86(55.9)
	참가	7(4.6)	15(9.7)	14(9.1)	18(11.7)	14(9.1)	68(44.1)
	전체	16(10.4)	22(14.3)	41(26.6)	40(26.0)	35(22.7)	154(100)
카이제곱 검정		$\chi^2=7.074, df=4, \text{유의확률}=0.132$					
총련	비참가	12(7.8)	16(10.4)	24(15.6)	36(23.4)	35(22.7)	123(79.9)
	참가	4(2.6)	6(3.9)	17(11.0)	4(2.6)	0(0)	31(20.1)
	전체	16(10.4)	22(14.3)	41(26.6)	40(26.0)	35(22.7)	154(100)
카이제곱 검정		$\chi^2=23.914, df=4, \text{유의확률}=0.000$					

다음으로 제일코리아 기업가의 경제네트워크 참가 현황을 살펴보자. 제일코리아 기업가들은 전체적으로 한국상공회의소에 46개사(29.9%)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 중 민단체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33개사(71.7%=33/46)이고, 총련계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1개사(2.2%=1/46)이다. 한편, 제일코리아 기업가들은 전체적으로 조선인상공연합회에 40개사(26.0%)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 중 민단체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11개사(27.5%)이고, 총련계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29개사(72.5%)이다. 부연설명하면, 민단체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한국인상공회의소에 33개사(21.4%)가 참가하고 있고, 조선인상공연합회에는 11개사(7.1%)가 참가하고 있으며, 총련계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한국인상공회의소에 1개사(0.6%)만이 참가하고 있고, 조선인상공연합회에는 29사(18.8%)가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단체 제일코리아 기업가들은 한국인상공회의소에 주로 참가하고 있고, 조선인상공연합회에도 조금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총련계 제일코리아 기업가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인상공연합회하고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일코리아 기업가들은 전체적으로 기업가협회에 19개사(12.4%)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 중 민단체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8개사(42.1%=8/19)이고, 총련계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2개사(10.5%=2/19)이다. 한편, 제일코리아 기업가들은 전체적으로 OKTA에 18개사(11.8%)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 중 민단체는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7개사(38.9%=7/18)이고, 총련계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1개사(5.5%=1/18)이다. 부연설명하면, 민단체 제일코리아 기업가는 기업가 협회에 8

개사(5.2%)가 참가하고 있고, OKTA에는 7개사(4.6%)가 참가하고 있으며,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가는 기업가 협회에 2개사(1.3%)만이 참가하고 있고, OKTA에는 1개사(0.7%)가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단체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은 기업가 협회와 OKTA에 소수가 참가하고 있는 반면,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은 기업가 협회와 OKTA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민단체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한국상공회의소 및 조선인상공연합회 참가현황

단체구분		한국인상공회의소			조선인상공연합회		
		비참가	참가	전체	비참가	참가	전체
민단	비참가	73(47.4)	13(8.5)	86(55.9)	57(37.0)	29(18.9)	86(55.9)
	참가	35(22.7)	33(21.4)	68(44.1)	57(37.0)	11(7.1)	68(44.1)
	전체	108(70.1)	46(29.9)	154(100)	114(74.0)	40(26.0)	154(100)
카이제곱 검정		$\chi^2=20.239$, df=1, 유의확률=0.000			$\chi^2=6.079$, df=1, 유의확률=0.014		
총련	비참가	78(50.6)	45(29.3)	123(79.9)	112(72.7)	11(7.2)	123(79.9)
	참가	30(19.5)	1(0.6)	31(20.1)	2(1.3)	29(18.8)	31(20.1)
	전체	108(70.1)	46(29.9)	154(100)	114(74.0)	40(26.0)	154(100)
카이제곱 검정		$\chi^2=13.154$, df=1, 유의확률=0.000			$\chi^2=92.176$, df=1, 유의확률=0.000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은 전체적으로 재일한국인연합회(한인회)에 24개사(15.6%)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 중 민단체 재일코리안 기업가는 10개사(41.7%=10/24)이고,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가는 0개사(0%)이다. 따라서 민단체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은 한인회에 소수 참가하고 있는 반면,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은 한인회에 전혀 참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민단체와 총련계 재일코리아 기업가의 기업가협회 및 OKTA 참가현황

단체구분		기업가협회			OKTA		
		비참가	참가	전체	비참가	참가	전체
민단	비참가	74(48.4)	11(7.2)	85(55.6)	74(48.4)	11(7.2)	85(55.6)
	참가	60(39.2)	8(5.2)	68(44.4)	61(39.8)	7(4.6)	68(44.4)
	전체	134(87.6)	19(12.4)	153(100)	135(88.2)	18(11.8)	153(100)
카이제곱 검정		$\chi^2=0.048$, df=1, 유의확률=0.826			$\chi^2=0.255$, df=1, 유의확률=0.614		
총련	비참가	105(68.6)	17(11.1)	122(79.7)	105(68.6)	17(11.1)	122(79.7)
	참가	29(19.0)	2(1.3)	31(20.3)	30(19.6)	1(0.7)	31(20.3)
	전체	134(87.6)	19(12.4)	153(100)	135(88.2)	18(11.8)	153(100)
카이제곱 검정		$\chi^2=1.273$, df=1, 유의확률=0.259			$\chi^2=2.731$, df=1, 유의확률=0.098		

<표 11> 민단체와 총련계 재일코리아 기업가의 재일한국인연합회(한인회) 참가현황

단체구분		한인회		
		비참가	참가	전체
민단	비참가	72(46.7)	14(9.1)	86(55.8)
	참가	58(37.7)	10(6.5)	68(44.2)
	전체	130(84.4)	24(15.6)	154(100)
카이제곱 검정		$\chi^2=0.071$, df=1, 유의확률=0.789		
총련	비참가	99(64.3)	24(15.6)	123(79.9)
	참가	31(20.1)	0(0)	31(20.1)
	전체	130(84.4)	24(15.6)	154(100)
카이제곱 검정		$\chi^2=7.165$, df=1, 유의확률=0.007		

이와 같이 민단체와 총련계 재일코리아 기업가의 경제네트워크 참가여부를 비교한 결과, 민단체 기업가의 경우 한국상공회의소와 조선인상공연합회와는 강한연대, 그리고 재일한국인연합회, 기업가협회 및 OKTA 등과는 약한연대에 의한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총련계 기업가의 경우 조선인상공연합회하고만 강한연대에 의한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나머지 경제단체들과의 네트워크는 매우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구축 현황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가입율 20% 이상) 경제네트워크들(민단, 총련, 한국인상공회의소 및 조선인상공연합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참가빈도, 거래빈도 및 거래연수는 약한연대 성향을 보였고, 네트워크 크기와 경쟁도는 강한연대의 성향을 보였다.

<표 12> 민단계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특성

네트워크 특성지표	민단계		총련계		값의 범위	중위수	네트워크 가설	
	민단 소속 재일코리안기업 (68개)	한국상공회의소 소속 재일코리안기업 (46개)	총련 소속 재일코리안기업 (31개)	조선인상공연합회 소속 재일코리안기업 (40개)				
참가빈도 (상호연결기능)	1.61	1.739	1.484	1.45	1~3	2	적다	약한연대
네트워크 크기 (기업가간 거리감)	1.897	1.913	1.774	1.75	1~4	2.5	좁다	강한연대
경쟁도	2.029	2.022	1.806	1.9	1~5	3	낮다	강한연대
거래빈도 (신뢰도)	2.868	2.609	1.806	1.85	1~5	3	적다	약한연대
거래연수 (신뢰도)	8.971	10.391*	9.194	6.725	1~48	10	작다	약한연대

주) * : 한국상공회의소 소속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우 강한연대 성향을 보임

3.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인과 관계 분석

측정변수의 판별타당도 검정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이 0.9이상이면 판별성에 대해 의심해야 한다. <표 13>에서 보듯이 참가빈도와 네트워크 만족의 상관관계가 0.5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은 이보다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간의 상관계수가 1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표 16> 측정변수들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량

구 분	참가빈도	네트워크 크기	경쟁도	거래빈도	거래연수	네트워크 만족	경영성과
참가빈도	1						
네트워크 크기	.139*	1					
경쟁도	.037	-.046	1				
거래빈도	.181**	.215***	.008	1			
거래연수	-.059	.033	.015	-.089	1		
네트워크 만족	.522***	.278***	-.105	.201**	-.018	1	
경영성과	.145*	.416***	-.100	.148*	-.011	.376***	1
평균	1.591	1.792	2.045	2.422	12.485	2.864	2.734
표준편차	0.746	0.814	1.151	2.114	10.815	1.029	0.801

주) * : P<0.1, ** : P<0.05, *** : P<0.01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참가빈도, 네트워크 크기, 거래빈도, 거래연수, 경쟁도)과 네트워크 만족 간의 관계 및 네트워크 만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Tolerance)를 조사하였다. <표 14>와 <표 15>에서 보듯이, 분산팽창계수 모두가 이상적인 수준인 1에 근접(1.009~1.326)하고 있고, 공차한계도 10%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Hair 등, 1979).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의 결과가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14>는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 만족 간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참가빈도는 네트워크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네트워크 크기는 네트워크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거래빈도는 네트워크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가설3은 기각되었다. 거래연수는 네트워크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가설4는 기각되었다. 경쟁도는 네트워크 만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재일코리안 기업가가 경제네트워크에 참가빈도가 많을수록, 경제네트워크의 크기가 넓을수록, 경쟁상황이 낮을수록 경제네트워크에 대한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4>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 만족 간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Beta	t	Sig. F	Tolerance	VIF
참가빈도	.487	7.099***	.000	.954	1.048
네트워크 크기	.189	2.728***	.007	.939	1.065
거래빈도	.068	.874	.383	.754	1.326
거래연수	.013	.167	.867	.791	1.264
경쟁도	-.116	-1.719*	.088	.991	1.009
모형 요약			F=14.847, Sig. F=0.000 R ² =0.334, 수정된 R ² =0.312		

주) * : P<0.1, ** : P<0.05, *** : P<0.01

<표 15>는 네트워크 만족과 경영성과 간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네트워크 만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6은 채택되었다.

<표 15>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만족과 경영성과 간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Beta	t	Sig. F	Tolerance	VIF
네트워크 만족	.376	5.002***	.000	1.000	1.000
모형 요약			F=25.019, Sig. F=0.000 R ² =0.141, 수정된 R ² =0.136		

주) *** : P<0.01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58만명에 해당되는 재일코리안들 중에서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경제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재일코리안 기업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구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1) 민단계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차이 분석, 2) 민단계와 총련계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 분석, 3)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분석이 그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민단계와 총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일코리안 세대별로 민단과 총련의 각 단체나 조직에의 참가여부는 재일코리안 1세대의 경우 조선인상공연합회에 참여비율이 높았으나 재일코리안 2세대로 갈수록 한국상공회의소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이 1990년대 글로벌화가 본격화된 이후 한국이나 모국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민단과 총련의 각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체참가여부에서는 총련의 경우, 총련계 조선인상공연합회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총련의 민단계 한국인상공회의소 참여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은 민단계와 총련계로 구분 가능한데, 총련계는 총련계 기업간의 단체나 조직에 있어서 강한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민단계는 민단이나 총련계 기업과의 넓고 확대된 약한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단계와 총련계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에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재일코리안 기업의 참가빈도, 네트워크 크기, 거래빈도는 네트워크 만족도와 경영성과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트워크 만족도와 경영성과 또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네트워크 특성지표들과 네트워크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참가빈도와 네트워크 크기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경쟁도는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네트워크 만족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재일코리안 기업가는 참가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참가빈도가 높을수록(강한연대 성향), 네트워크 크기가 넓을수록(약한연대 성향), 경쟁도가 낮을수록(강한연대 성향) 네트워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그 결과 경영성과도 좋아 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특성지표 중에서 네트워크 참가빈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재일코리안 기업가, 모국(한국) 기업가 및 모국(한국) 정책담당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네트워크 특성을 보면, 민단계 기업은 강한연대뿐만 아니라 약한연대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으나, 총련계 기업은 강한연대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향후 총련계 기업가들과 민단계기업가들 간의 상호교류나 정보교환의 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총련계 기업가들이 강한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모국(한국) 기업가들이 총련계 기업가들과의 경제네트워크가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모국(한국) 기업가들이 일본에서 새로운 시장개척이나

기술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틈새로서 총련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그동안 경원시 되어왔던 총련계 기업가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이 민단이나 총련 어느 쪽을 지지해 왔는가에 따라 그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시대 폐쇄적인 총련계 기업이 개방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제대회나 행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연구 사정상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재일코리안 기업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샘플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에서도 귀화자와 국적 변경자가 증가하면서 민단계와 총련계라는 이분법으로 시대적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일코리안 기업 전반에 관한 세밀한 연구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 김태영 · 박재수(2006)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상황구조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제30집)』 .
- 임채완 · 장선미외(2007) 『재미한인의 기업의 네트워크』 북코리아.
- 임채완 · 임영언외(2007) 『재일코리안기업의 네트워크』 북코리아.
- 임영언(2007)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제34집)』 .
- 서인석(2003) 「호주 현지 한국인 기업 연구: 이민자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교육논총 제 31집』 .
- 재외동포재단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年 足跡』 재외동포재단.
- 해외교포문제연구소(1966) 『교포정책자료 No.3 해외교포재산반입문제』 (1963년 1월부터-1964년 8월까지).
- 朴三石 (2002) 『海外コリアン』 中公新書.
- 吳圭祥 (1996) 『アジアを翔る華僑・在日コリアン』 朝鮮青年社.
- 在日韓國商工會議所 (1997) 『在日韓國人會社名鑑』 .

- 在日韓國青年商工人連合會、1989、『青商連合會「青商運動10周年記念誌」』育英出版社.
-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 (2001)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55年』.
- 在日韓國商工會議所(2002) 『韓商連四十年史』在日韓國商工會議所.
- 河明生 (2003) 『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在日韓人事例研究—』株式會社ITA.
- 守政毅、2004、「華商のネットワーキング活動と華人ネットワーク組織のブリッジ機能」『福岡・アジア太平洋研究報告』VOL (13)、財団法人福岡アジア都市研究所.
- 渡辺深、1999、『「轉職」のすすめ』講談社現代新書.
- 安田雪、2001、『實踐ネットワーク分析』新曜社.
- Anderson, J.C., and Gerbing, D.W. 1988. "Some methods for Respecifying Measurement Models to Obtain Undimensional Construct Measure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9, No.4.
- Burt, S. Ronald. 1984(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Karen E., Marsden, Peter V., and Jeanne S. Hurlbert. 1986.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s* 8.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pp.1360-1380
- Granovetter, Mark. 1988. "The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 to Labor Markets : A Social Structural View." In *Industries, Firms, and Jobs: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edited by G. Farkas and P. England. Plenum Press.
- Granovetter, Mark. 1982.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In Marsden, P.V., and Lin, 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 Granovetter, Mark. 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轉職』 マーク・グラノヴェッター著、渡辺深譯、ミネルヴァ書房).
- Hair, J.F., Anderson, A.E, Tatham, R.L., and Grablovsky, B.I., 1979. "Multivariate Data Analysis," Division of Petroleum Publishing Co., Tulsa.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在日コリアン企業の経済ネットワークの構造的特徴による経営成果を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今後望ましい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構築の方向を模索することである。そのため在日コリアン企業を民団系と総連系に分け、経済ネットワークの構造的な差、経済ネットワークの特徴と経営成果間の相関関係を調べた。

研究の方法は在日コリアンが大勢居住している東京、大阪、福岡地域を中心に面接調査と郵便調査を行い、最終的に154部が収集され分析に活用した。

本研究は在日コリアン企業を民団系と総連系に分けて分析を試みたところに大きな意義がある。

分析の結果、総連系の企業家は団体や組織のネットワークが強い紐帯で結ばれているが、民団系は弱い紐帯を形成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回帰分析では、在日コリアン企業の経済ネットワークの特徴と経営成果間の相関関係を分析した結果、団体や組織への参加頻度、ネットワークの大きさ、取引年数が多いほどネットワーク満足度や経営成果が高かった。

以上の研究結果から今後閉鎖性が強い総連系企業家たちと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を志向する民団系企業家間の移民社会においてさらなる相互交流や情報交換の場と努力が重要であることを見せている。

キーワード：在日コリアン企業、経済ネットワーク、民団系、総連系、強い紐帯、弱い紐帯、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

투 고 : 2010. 11. 30

1차 심사 : 2010. 12. 11

2차 심사 : 2011. 1. 08